

문은석 선교사 사역보고 및 계획

1. 중국인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인교회 사역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단지 부르심에 따라 치앙마이 땅을 밟았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은교회(主恩教會)를 만나게 하였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찬양 사역을 시작으로 중국 대륙에서도 하지 못했던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

중국어 실력의 부족, 설교에 대한 부담감, 교인들과의 언어적 교감 부족, 문화적 차이 등, 사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고 싶은 말들을 참아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생활 방식을 이해하면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비록 한국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선교사로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모이는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즉 삶의 현장에서 복음전도자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2024년은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의 후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치앙마이는 지금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지역이다. 아이들의 조기 영어교육이 용이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는 중국인 교회는 전도와 양육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영혼구원에 힘써야 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목양사역

매월 첫째주는 성찬식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매월 1회씩 진행되는 성찬식이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설교는 새신자 중심으로 가급적 쉽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올 하반기부터 설교를 마친 후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그룹 토론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설교를 듣는데 더욱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삶의 적용점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제자훈련사역

이곳에 있는 중국인들은 평균 4-5년 정도 이곳 치앙마이에 거주하다가 제3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내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한다. 매주 1회 단계별 성경공부를 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하반기를 나누어 모든 교인들이 성경공부 그룹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할 예정이다.

3)영성 수련회

지난 9월 18-20일 수원동부교회(주파송) 임재홍목사를 모시고 영성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영적전쟁, 성령충만, 기도의 능력” 등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기도회를 인도하였는데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중국에서 잠시 치앙마이에 온 한 성도가 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성령체험을 하게 되어 세례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2.기숙사 및 중문학교사역

현재까지 기숙사 및 중문학교 사역은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왔다. 하지만 12월부터 매주 아이들과 함께 중국어로 성경공부를 인도할 예정이다. 태국 학생들이지만 중문학교를 통해 중국어를 배워 소통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성경을 배우면서 동시에 중국어 실력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3.선교사역

2024년도 새로운 목회의 도전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사역이다. 3년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늘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것 같다. 최근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와 관련된 사진을 공동체방에 올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 혼자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치앙마이 북부에 있는 화교들(중국 운남성에서 미얀마를 통해 넘어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통한 선교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

산골 소수민족 학생들을 돕는 기숙사 사역, 마약 중독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독소(戒毒所)를 돕는 사역,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현지 사역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 등등...



아직은 선교에 생소한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가 무엇인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등 선교를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이 언젠가 국내로 돌아가 잠자는 중국교회를 깨우고,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열매는 없을 것이다.

2024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3년 11월 11일

치앙마이에서 문은석 선교사 드림